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친환경행동 발현 과정에서 여가전문화, 동기 및 제약의 영향: 낚시참여자를 중심으로

김남희¹ · 오치옥²

¹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소 연구원 · ²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The Effect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Motivation, and Constraints on the Manifestation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nts: Focused on Recreational Fishing

Kim, Namhee¹ · Oh, Chi-Ok²

¹Chonnam National University, Cultural Convergence Research Institute ·

²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in outdoor recreation,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have emerged. Given the current inadequacy of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is essential to explore solutions through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s of recreation participa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motivations for pro-environmental behavior, and constraints on the intention to engage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with a focus on recreational fishing, an outdoor activity that directly utilizes environmental resources. To achieve this, survey data from 457 individuals who had participated in saltwater fishing along the southern coast of South Korea within the past 12 months were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recreation specialization positively influenced motivations for pro-environmental behavior while negatively affecting constraints. Furthermore, both motivations and constraints significantly impacted the intention to engage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through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recreation specialization, providing periodic environmental data to encourage pro-environmental motivations, and offering information to mitigate constrai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extend beyond fishing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participation in outdoor recreation.

Key words : outdoor recreation, pro-environmental behavior, recreation specialization, motivation, constraint, recreational fishing

주요어 : 야외여가활동, 친환경행동, 여가전문화, 동기, 제약, 낚시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6447)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Oh, Chi-Ok

E-mail: chiokoh@jnu.ac.kr

Received: Jan, 31, 2025 Revised: Mar, 7, 2025 Accepted: Mar, 17, 2025

I. 서론

현대인의 건강 증진 욕구와 도시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들에게 자연에의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이들이 야외에서 행하는 여가, 친환경적인 여가, 그리고 자연에서의 휴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3). 야외 여가활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김봉주, 박수정, 김민규, 2015; Thapa,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여가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야외 여가활동은 토양과 지형의 변형, 식생 및 생태계 훼손, 야생동물 교란, 그리고 수질과 대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ardar & Islam, 2024). 지속적인 야외 여가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보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환경 보전과 여가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야외 여가활동 중 여가낚시(recreational fishing, 이하 낚시로 칭함)는 인간과 수생 생태계가 긴밀한 상호작용하는 사회 생태 시스템(social-ecological systems)의 대표적인 사례(Arlinghaus et al., 2020)로, 낚시 행위 자체가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생태계의 상태가 낚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국내에서 낚시는 최근 인기가 증가하여 참여자가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자원 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 과도한 어업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야외 여가활동의 환경자원은 공공재이자 공

유자원의 특성을 가진다. 특히 수산자원은 재생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사용 비율에 따라 부존량이 변화되며 이에 따라 재생산 비율도 변화되는 자원이다(김호, 허승욱, 2011). 즉,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한정된 양으로 인해 개인의 이용이 다른 참여자의 이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는 자원이다. 낚시는 다른 여가활동과 달리 이러한 수산자원을 직접 소비한다는 특성이 있어 자원고갈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오치욱, 남정호, 한주형, 2019). 공유자원의 이러한 특성은 과도한 어획을 유발하여 자원고갈로 이어지는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Tietenberg(2000)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유자원의 관리에서는 과도한 소비를 막고 비배제성의 특성에서 오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료의 부과, 활동 규제나 공공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한 정부개입이 필수적이다. 낚시의 경우, 낚시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존재하지만, 낚시 참여자 대부분은 모르고 있으며(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다른 나라에서는 낚시 환경 관리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나 낚시이용권제 또는 면허제와 같은 제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는 여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여가를 즐기면서도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김중순, 2019)하며, 여가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가 참여자들의 친환경행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친환경행동의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야외 여가활동과 같은 자연 기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행동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태도나 인식이 친환경적으로 형성될 때 친환경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김

진현, 임근욱, 최용석, 2019; 이현영, 김남조, 2017; 최성범, 정우진, 2011 등). 이러한 연구들은 친환경행동이 야외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보다 개인의 친환경적 인식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야외 여가활동 중 친환경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므로, 여가활동 참여를 단순한 경험이 아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대표적 요인으로는 여가전문화가 있다. 여가전문화는 일반적인 여가 참여에서 더 전문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연속체(Bryan, 1977)로 정의되므로 개별적인 점이 아닌 점진적인 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을 활용한다면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야외 여가활동 중 환경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연구한 Raynal et al.(2020)에 따르면 여가활동에 대한 전문화가 높아질수록 환경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강화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환경행동이 발현된다. 이 과정을 통해 여가 참여자는 여가에 대한 개인적 관여가 강화되는 전문화 과정을 거치며,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선호를 공유하는 전문화된 공동체를 형성한다. 또한, 여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고, 서식지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인식하면서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여가 참여자는 의도적으로 친환경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점차 전문화되며 친환경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가활동의 전문화가 친환경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다양한 영향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는 행동을 내적으로 촉진하는 동기와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제약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낚시와 같은 여가활동에서 친환경행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기가 필수적이지만, 시설이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외부 제약 요인들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좌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친환경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Geller(2002)가 제시한 구조적 전략은 행동 선택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Steg & Vlek(2009)에 따르면 이러한 구조적 전략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며, 이는 행동에 대한 외부 장벽과 개인의 인식 및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 행동 변화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행동에 대한 동기와 제약은 각각 행동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을 의미하므로, 구조적 전략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야외 여가활동 중 낚시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여가전문화와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 및 제약이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친환경행동 장려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 고찰

1. 여가전문화와 친환경행동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실력과 장비, 그리고 행동적 및 정서적 관여 정도를 가지고 있다. 낚시의 경우, 낚시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낚시 실력이 늘어나고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낚시를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짐에 따라 ‘낚시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선행

연구자들은 여가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라고 명명했다. Bryan(1977)은 여가전문화를 "활동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 및 활동 선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적인 참여에서 특별한 참여로 발전하는 연속체"(p. 175)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전문화 이론은 낚시 분야에서 도입된 이후, 카누, 래프팅, 캠핑, 등산, 야생동물 관찰 등 수많은 야외 여가 연구에 적용되어 왔다(Scott & Shafer, 2001).

여가전문화와 친환경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여가전문화가 친환경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환경인식 관련 선행요인들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여가전문화가 친환경적인 태도나 인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Bentz et al., 2016)는 점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증명되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문화된 여가 참여자들은 일반적이거나 광범위한 환경 문제보다는 특정 지역의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많으며(Thapa et al., 2005), 비소비적인 사용과 자원 보호에 대한 규정에 더 큰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Dyck et al., 2003).

전문화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삶에서 여가활동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여가활동의 규칙, 규범, 절차에 대한 수용과 지지가 높아지며,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할 수 있다(Thapa et al., 2005). 이로 인해 여가활동의 기반이 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친환경 인식과 태도가 강화되면 친환경행동에도 순차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어, 여가전문화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 대한 관심(concern), 삶에서의 여가 활동의 중심성(centrality-to-lifestyle)은 친환경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oper et al., 2015; Guckian et al., 2018; Jeanson et al., 2021). 즉,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친환경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삶에서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활동에 필요한 자원에의 의존도가 증가하여 이에 따라 친환경적인 행동을 통해 자원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의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여가 환경에 대한 선택속성과 이용만족이 여가전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노재현(2012)의 연구가 있다. 즉, 여가에 전문화된 참여자일수록 여가 환경의 자원상태나 관리 조치 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러한 행태가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수행하는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가전문화와 장소 정체성, 그리고 친환경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김종순, 원형중(2016)의 연구를 통해 여가에 전문화된 사람일수록 내가 참여하는 여가 환경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를 통해 친환경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여가전문화는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친환경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와 제약

동기는 "행동의 이유"이며 우리로 하여금 특정 행동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이다(Kollmuss & Agyeman, 2002). 동기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적 동기와 일종의 강화 또는 사회적 인정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적 동기로 구성된다(Kasser & Ryan, 1996). 이 중,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자기 결정성을 통한 내적 동기가 만족되었을 경우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행동을 하게 된다(Deci & Ryan, 1999). 즉, 여가 참여자들의 친환경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결과적으로 친환경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친환경행동과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Lee & Jeong, 2018; Taberner & Hernandez, 2012; Van der Werff et al., 2013)를 종합해보면 외부 보상이 아닌 내적 만족이나 도덕적 의무감을 위해 친환경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이나 효능감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강하게 형성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심에 호소하여 환경 행동 변화를 설득하는 방법은 종종 실패하며, 이는 사람들이 친환경적 태도와 지식,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Gaspar, 2013).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Blake(1999)는 대부분의 친환경행동 관련 모형이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Kollmuss & Agyeman, 2002). 즉, 친환경행동을 단순히 이타적 행위가 아니라 비용과 편익까지 고려한 선택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희제, 허주영, 2010). 따라서 사람들의 친환경행동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환경 관련 인식과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요인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정 야외 환경에 대한 친환경행동과 행동에 대한 제약을 다룬 실증 연구(Sutton & Tobin, 2011; Yoon et al., 2012)를 살펴보면 제약은 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또한 야외 여가활동에서의 친환경행동 제약을 다룬 연구는 소수 존재하는데, Moghimehfar & Halpenny(2016)와 Moghimehfar et al.(2018) 모두 제약이 친환경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동기와 제약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

는 주로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증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Gkargkavouzi, Halkos, & Matsiori, 2019). 관련된 실증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Moghimehfar & Halpenny(2016)에서는 Steg et al.(2015)이 언급한 내용과 동일한 결과, 즉 동기가 제약을 완화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환경적으로 책임이 있는 캠핑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은 제약을 인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친환경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Gkargkavouzi et al.(2019)은 동기와 제약의 관계, 그리고 제약과 친환경행동의도의 관계는 모두 부(-)의 관계성이 나타났으며, 동기와 제약의 하위 요인 간 관계 중에서는 규범적 동기가 목표 상충이라는 제약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환경행동에 대한 동기가 높은 개인은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채택하기 위한 제약을 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Steg et al., 2015). 다시 말해서,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와 제약을 따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동시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제약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구성한다면 친환경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여가전문화, 동기 그리고 제약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 제약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친환경행동 동기는 친환경행동 제약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각된 행동통제와 친환경행동의도

개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행동 연구는 행동의도를 통해 행동을 설명하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을 바탕으로 수행되어 왔다.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과 태도(attitude)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며, 그들의 의지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이진우, 손영곤, 2017). 그러나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행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관적 규범과 태도 외에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 control)가 추가된 이론이 바로 계획행동이론이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방해 요소나 제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고 가정된다(Ajzen, 2020). 즉,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규범,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이 모두 행동을 이끌어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친환경 행동에 적용하면, 지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적 요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을 받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친환경행동 연구 중 자연 기반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는 자연 기반 스포츠(최성범, 정우진, 2011), 친환경 관광(임재필, 류재숙, 2022), 자연 기반

관광지 방문(김진현, 임근욱, 최용석, 2019)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친환경행동에 대한 태도,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환경에 친화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친환경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강한 주관적 규범의식, 그리고 행동통제에 대한 더 큰 지각이 친환경적인 행동 수행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 중 지각된 행동통제의 경우, 외부의 영향을 통제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므로 앞서 언급한 동기 및 제약과 함께 친환경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주요 요인 중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의도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4. 친환경행동 동기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친환경행동 제약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친환경행동 제약은 친환경행동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지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및 가설

개인의 행동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바람직한 행동 참여에 대한 방해 요인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Battista et al., 2018). 따라서 <표 1>의 연구 가설 검증을

통해 낚시참여자들의 친환경행동 촉진 및 제약 요인이 친환경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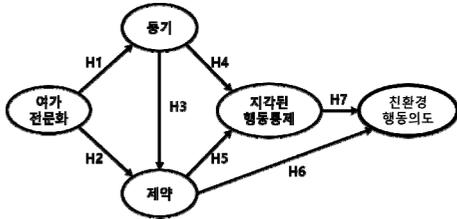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표 1. 연구 가설

H1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 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 제약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친환경행동 동기는 친환경행동 제약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친환경행동 동기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친환경행동 제약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친환경행동 제약은 친환경행동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지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표본 선정 및 자료수집

현재 낚시참여자 모집단 관련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난 12개월 내 바다낚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낚시참여자에게 남해안에서 낚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당표본 추출법(Quota Sampling)을 적용하여 설문을 진행했다. 남해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낚시지역으로, 낚시어선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2021년 기준, 1위: 경남 29%, 2위: 전남 17%)(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또한, 리아스식해안의 특징으로 섬이 많아 갯바위낚시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기

도 하다(이창수, 박준모, 박진규, 2016). 따라서 바다낚시참여자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주요 낚시 지역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는 2022년 8월 한 달간 수행하였으며, 현장 설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장 설문조사의 경우, 남해안(목포, 영암, 여수, 남해, 사천)을 중심으로 개인 및 동호회 회원에게 면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는 온라인 바다낚시 커뮤니티와 바다낚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485부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이 나타난 2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5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여가전문화 설문 문항은 길기연, 최일선, 김가운(2014), 오치옥, 남정호, 한주형(2019)의 문항을 사용했다. 하위요인은 행동, 기술과 지식, 심리적 몰입으로 분류되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환경행동 동기 설문 문항은 Taberero & Hernandez(2012)의 문항을 사용했으며, 하위요인은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친환경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낚시참여자들의 친환경행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내적 동기만을 물었으며, 총 3문항으로 구성됐다. 환경행동 제약 설문 문항은 Sutton & Tobin(2011)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객관적 제약과 주관적 제약으로 분류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 설문 문항은 Ajzen et al., (2011)의 문항을 사용했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친환경행동의도 설문 문항은 Wynveen et al.(2013)의 문항을 사용했으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

이 연구의 분석은 SPSS 27.0을 이용하여 낚시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분석을 실시하고, Mplus 8.0을 이용하여 여가전문화와 친환경행동 관련 요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이 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IV.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10명(89.0%)이 많았고, 연령을 살펴보면 주로 30대(175명, 38.3%), 40대(133명, 29.1%)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서울/경기/강원이 175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296명(64.8%),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500만원이 96명(2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적재량이 .463~.903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이 해당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적합도 지수의 경우, $\chi^2 / df \leq 3$, $CFI \geq .90$, $TLI \geq .90$, $SRMR \leq .08$, $RMSEA \leq .08$ 이면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는데, 지각된 행동 통제 요인에서 $RMSEA$ 값이 .08을 약간 상회하며, χ^2 / df 값이 3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의 모든 기준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

에 이용하였다. 전체 내용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수 분석 결과

구 분	조사 표본		
	빈도	비율(%)	
전 체	457	100.0	
성별	남자	410	89.7
	여자	47	10.3
연령	20대	29	6.3
	30대	175	38.3
	40대	133	29.1
	50대	77	16.8
	60대 이상	43	9.4
거주지	서울/경기/강원	175	38.3
	경상	99	21.7
	전라/제주	153	33.5
	충청	30	6.6
학력 (무응답: 14)	중학교 졸업 이하	6	1.3
	고등학교 졸업	107	23.4
	대학교 졸업	296	64.8
	대학원 재학 이상	34	7.4
월평균 가구소득 (무응답: 1)	100만원 미만	5	1.1
	100~200만원 미만	14	3.1
	200~300만원 미만	68	14.9
	300~400만원 미만	85	18.6
	400~500만원 미만	96	21.0
	500~600만원 미만	56	12.3
	600~700만원 미만	40	8.8
	700~800만원 미만	30	6.6
	800~900만원 미만	17	3.7
	900~1,000만원 미만	10	2.2
1,000만원 이상	35	7.7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하위요인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Z	Cronbach's α
여가전문화	행동	.744	.031	23.909	.787
		.730	.031	23.869	
		.724	.034	21.243	
	기술과 지식	.903	.018	50.333	
		.870	.019	45.993	
	헌신	.791	.031	25.720	
		.642	.036	17.913	
		.613	.037	16.538	
		.509	.047	10.883	
	적합도 지수: CFI=.989, TLI=.979, RMSEA=.052, $\chi^2=39.770$, df=18				
친환경행동 동기	-	.551	.063	8.789	.636
		.542	.073	7.461	
		.481	.059	8.146	
	적합도 지수: df=0				
친환경행동 제약	객관적 제약	.651	.042	15.441	.688
		.542	.046	11.902	
		.522	.047	11.16	
	주관적 제약	.486	.049	10.01	
		.767	.024	31.711	
		.758	.025	30.607	
지각된 행동 통제	-	.738	.026	28.495	.853
		.700	.028	24.694	
		.633	.032	19.612	
		.626	.033	19.208	
		적합도 지수: CFI=.963, TLI=.945, RMSEA=.064, $\chi^2=85.801$, df=30			
	.556	.039	14.429		
친환경행동 의도	-	.798	.027	29.742	.777
		.755	.029	26.390	
		.583	.037	15.807	
		.565	.038	14.836	
		.556	.039	14.429	
	적합도 지수: CFI=.971, TLI=.943, RMSEA=.088, $\chi^2=22.498$, df=5				
친환경행동 의도	-	.888	.030	29.603	.805
		.739	.038	19.533	
		.630	.034	18.678	
		.518	.038	13.574	
		.496	.040	12.416	
	.492	.039	12.538		
적합도 지수: CFI=.977, TLI=.956, RMSEA=.065, $\chi^2=32.414$, df=11					

3. 모형 적합도 검증

여가전문화가 동기와 제약, 지각된 행동 통제, 그리고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전, 먼저 5개 요인의 관계가 공분산으로 설정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총 연구 모형적합도는 CFI=.930, TLI=.919, RMSEA=.043, $\chi^2/df=1.85$ 으로 산출되어 모든 기준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5개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에 사용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는 CFI=.922, TLI=.911, SRMR=.075, RMSEA=.045, $\chi^2/df=1.94$ 로 모든 기준이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형을 분석하였다.

표 4. 구조방정식 모형 적합도

	χ^2	df	CFI	TLI	SRMR	RMSEA
적합도	955.761	493	.922	.911	.075	.045
판단기준	$\chi^2/df \leq 3$		$\geq .90$	$\geq .90$	$\leq .08$	$\leq .08$

4. 가설 검증

연구 가설 검증 결과, 총 7개의 가설 중 가설 2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표 5>). 가설 1,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 동기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280$, $t=4.105$, $p<.01$)을 미쳐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2,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 제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beta=.010$, $t=.154$, $p>.1$) 가설이 기각되었다. 가설 3, 친환경행동 동기는 친환경행동 제약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0.180$, $t=-2.621$, $p<.01$)을 미쳐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4, 친환경행동 동기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532$, $t=7.240$, $p<.01$)을 미쳐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5, 친환경행

동 제약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262, t=-4.111, p<.01$)을 미쳐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6, 친환경행동 제약은 친환경행동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beta=-.089, t=-1.706, p<.1$)을 미쳐 가설이 채택되었다. 가설 7, 지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beta=0.492, t=9.525, p<.01$)을 미쳐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표 5. 구조모형 검증 결과

독립변수 → 종속변수	경로 계수	표준 오차	t값	가설 채택여부
H1 전문화 → 동기	.280	.068	4.105 ***	채택
H2 전문화 → 제약	.010	.065	0.154	기각
H3 동기 → 제약	-.180	.069	-2.621 ***	채택
H4 동기 → 통제	.532	.073	7.240 ***	채택
H5 제약 → 통제	-.262	.064	-4.111 ***	채택
H6 제약 → 행동의도	-.089	.052	-1.706 *	채택
H7 통제 → 행동의도	.492	.052	9.525 ***	채택

* $p<.1$,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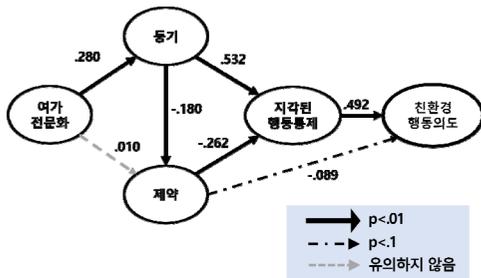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관계로 나타난 경로를 바탕으로 하여 모형의 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검증하였다(<표 6>). 먼저 간접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경로 1을 통해서도 여가전문화가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친환경행동의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로 2에서는 경로 1의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와 지각된 행동통제 사이에서 친환경행동에 대한 제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로 1의 효과를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경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친환경행동에 대한 제약이 높더라도 지각된 행동통제를 통해 친환경행동의도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여가전문화가 친환경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의 총 효과는 .054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여가전문화가 높을수록 친환경행동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이 연구 결과는 여가 참여자의 여가전문화가 증가할수록 환경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강해지며, 이는 환경행동에 대한 제약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약화된 제약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강화시켜 친환경적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끌어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 구조방정식 모형 총 효과 검증 결과

	간접 효과 (표준오차)	총 효과 (표준오차)
여가전문화 → 친환경행동의도		.054 (.019)
경로 1 여가전문화 → 친환경행동 동기 → 지각된 행동통제 → 친환경행동의도	.048 (.017)	
경로 2 여가전문화 → 친환경행동 동기 → 친환경행동 제약 → 지각된 행동통제 → 친환경행동의도	.004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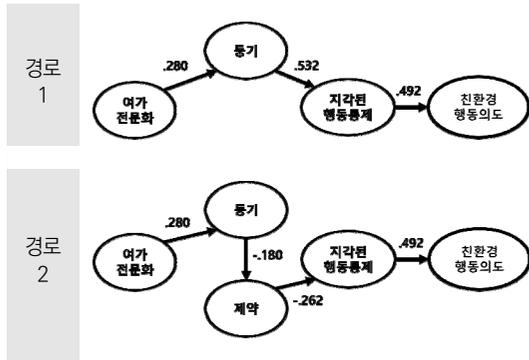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총 효과 검증 결과

V. 논의

이 연구에서는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여가 전문화와 친환경행동 동기 및 제약이 친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친환경행동 장려를 위한 구조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야외 여가활동 중에서도 여가환경 및 자원을 직접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친환경행동이 더욱 시급한 낚시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낚시참여자의 전문화 수준은 친환경행동 동기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가 전문화와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의 관계를 살펴본 Lee & Jeong(2018), 이경선 외(2016) 등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여가에 대한 전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친환경행동에 대한 동기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가전문화는 친환경행동 제약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동기가 제약에 부(-)의 영향을 미치면서, 전문화가 제약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여가전문화와 제약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해석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환경행동에 대한 제약이 행동 수행에 있어 단독으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있지만, 친환경행동 동기가 제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므로(Gkargkavouzi et al., 2019; Moghimehfar & Halpenny, 2016; Steg et al., 2015) 여가전문화가 높아질수록 동기가 강화되고, 제약이 순차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가전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기와 제약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각각 정(+)과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기가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신현규, 2013)과 제약이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Moghimehfar et al., 2018)을 규명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다. 즉, 전문화된 낚시참여자일수록 내적 동기가 강화되며, 이러한 동기는 친환경행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인을 덜 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친환경행동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제약은 친환경행동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지각된 행동통제의 향상은 친환경행동 수행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강화로 해석되므로, 이는 친환경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향상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계획행동이론의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친환경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기존 연구(김진현 외, 2019; 임재필, 류재숙, 2022; 최성범, 정우진, 2011)와 일치한다.

한편 친환경행동에 대한 제약을 높게 인식할수록 친환경행동을 의도는 약해지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선행연구(Moghimehfar & Halpenny, 2016; Moghimehfar et al., 2018; Sutton & Tobin, 2011)의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동기-제약의 관계(Gkargkavouzi

et al., 2019; Moghimehfar & Halpenny, 2016; Steg et al., 2015), 제약-지각된 행동통제의 관계(Moghimehfar et al., 2018)를 함께 살펴보면, 동기가 제약을 약화시키고, 약화된 제약은 지각된 행동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행동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약은 행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며,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이다. 즉, 제약이 높더라도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강하게 형성된 사람은 제약을 극복하며 행동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지각된 행동통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기, 그리고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전문화를 향상시킨다면 제약 인식 약화뿐만 아니라 행동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의 친환경행동 장려를 위한 구조적 전략은 전문화 향상을 통해 동기를 강화시키고 제약을 완화시켜 스스로가 친환경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가전문화는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향상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낚시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친환경행동 장려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전문화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행동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는 즐거움을 얻는 기회뿐만 아니라 여가 참여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규범 형성이나 여가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등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가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전문화 단계에 놓여있는 여가 참여자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모임이기도 하다. 여가와 관련된 기술이

나 규정 등을 습득하는 숙련 분위기가 높은 모임에 참여할수록 더 즐겁고 지속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박현호, 2023)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가 지속과 전문화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환경행동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여가 참여자의 친환경행동 참여가 환경보전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할 때 그 행동에 더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adley et al., 2020). 더불어 환경행동은 단기간에 또는 즉석에서 그 결과나 영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여가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친환경행동이 여가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여가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환경행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위해서는 제약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객관적 제약의 경우, 친환경행동에 대한 시간적 및 물리적 제약 인식을 낮출 필요가 있다. 시간적 제약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에 대해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청원이나 환경보전 단체에의 기부 등 상대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행동을 장려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제약 완화를 위해서는 여가 및 여가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관심을 향상시키고 환경 행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미흡한 정보 및 기준은 환경행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가 및 여가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자료를 제공한다면 환경 행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VI. 결론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행동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여가 환경 관리 문제가 최근에는 캠핑이나 등산과 같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야외 여가활동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더 많은 여가활동에서의 친환경행동 장려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대상인 낚시참여자들은 환경자원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활동을 하므로 다른 여가활동 참여자들에 비해 친환경적 인식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야외 여가활동 참여자들에게 이 연구의 방법 및 결과를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확실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낚시의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낚시참여자의 친환경행동 장려 방안은 현재의 낚시 관리 계획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낚시로 인한 환경 문제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는데(오세숙 외, 2017),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관리 정책 및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낚시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의 방향성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낚시에서의 친환경행동 장려 계획 방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 외 다른 야외 여가활동에서의 여가 참여와 친환경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여가환경과 자원

에 대해 소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낚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인기 있는 야외 여가활동인 캠핑이나 등산의 경우에도 여가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소비적인 활동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여러 야외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여가전문화를 비롯한 친환경행동 동기와 제약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행동에 대한 의도와 친환경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 계획행동이론에서는 행동의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Ajzen, 1991)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이 연구와 같이 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의도-행동 갭(intention-behavior gap)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 갭(gap)이 왜 나타나며,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해왔다(김지훈, 이희지, 이준성, 2022). 따라서 향후 이 현상을 중심으로 친환경행동에 대한 긍정적 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방법을 연구한다면, 야외 여가활동에서의 친환경행동을 장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길기연, 최일선, 김가운(2014). F1 경기 관람객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수준이 여가몰입과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2), 319-336.
- 김봉주, 박수정, 김민규(2015). 아웃도어 레크리에

- 이선 참여자의 친환경행동 형성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5), 607-618.
- 김중순(2019). 남성 낚시참여자의 환경행동과 캐치 앤 릴리스(Catch-and Release)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3), 83-94.
- 김중순, 원형중(2016). 남성 등산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장소애착, 환경태도 및 친환경행동의 관계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5(2), 499-509.
- 김지훈, 이희지, 이준성(2022).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친환경 스포츠 제품 구매 의도-행동 갭(Gap)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1(5), 291-310.
- 김진현, 임근욱, 최용석(2019).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환경인식이 부산국가지질공원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지리학회지**, 29(2), 129-145.
- 노재현(2012). 해양스포츠 전문화와 선택속성, 이용만족 및 친환경행동 간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2), 361-378.
- 박현호(2023). 낚시동호회의 동기분위기가 낚시대회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개인주의 성향을 조절효과로. **관광연구논총**, 35(1), 157-184.
- 박희제, 허주영(2010). 친환경행동의 결정요인과 구조: 친환경행동의 다차원성과 환경의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18(1), 1-26.
- 신현규(2013). 자기결정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을 통한 생태관광의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5(1), 231-250.
- 오세숙, 김중순, 이종성(2017). 낚시문화의 시대별 여건변화와 여가적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1(1), 27-44.
- 오치욱, 남정호, 한주형(2019). 낚시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전문화가 자원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수산경영론집**, 50(3), 43-57.
- 이경선, 장안성, 오치욱, 강신겸(2016).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따른 참여동기, 환경친화적 태도 및 행동의도의 이해: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 관광객을 사례로. **관광연구논총**, 28(2), 101-122.
- 이진우, 손영곤(2017). 계획된 행동이론의 확장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국내 학술지 대상 메타분석을 통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의 정교화를 위한 시론. **광고 PR 실학연구**, 10(3), 217-243.
- 이창수, 박준모, 박진규(2016).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바다낚시 관리 방안. 서울: 수산경제연구원.
- 이현영, 김남조(2017). 미세먼지 위험지각이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 참여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 **관광학연구**, 41(7), 27-44.
- 임재필, 류재숙(2022).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MZ 세대의 친환경 관광행동 연구. **관광연구저널**, 36(11), 113-125.
- 최성범, 정우진(2011). 생활스포츠 참가자의 친환경행동 예측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스포츠학회지**, 9(1), 153-165.
- 한국관광공사(2023).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3년 국내 관광트렌드. 원주: 한국관광공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9).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수시연구 2018-02).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 2022 수산-해양환경 통계.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2020).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requently asked questions. *Human Behavior and Emerging Technologies*, 2(4),

- 314-324.
- Ajzen, I., Joyce, N., Sheikh, S., & Cote, N. G. (2011). Knowledge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The role of information accuracy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3*(2), 101-117.
- Arlinghaus, R., Beardmore, B., Riepe, C., & Pagel, T. (2020). Species-specific preference heterogeneity in German freshwater anglers, with implications for management.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32*, 100216.
- Battista, W., Romero-Canyas, R., Smith, S. L., Fraire, J., Effron, M., Larson-Konar, D., & Fujita, R. (2018). Behavior change interventions to reduce illegal fishing. *Frontiers in Marine Science, 5*, 403.
- Bentz, J., Lopes, F., Calado, H., & Dearden, P. (2016). Managing marine wildlife tourism activities: Analysis of motivations and specialization levels of divers and whale watcher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18*, 74-83.
- Bradley, G. L., Babutsidze, Z., Chai, A., & Reser, J. P. (2020). The role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response efficacy,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A two nation stud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8*, 101410.
-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3), 174-187.
- Cooper, C., Larson, L., Dayer, A., Stedman, R., & Decker, D. (2015). Are wildlife recreationists conservationists? Linking hunting, birdwatching,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Journal of Wildlife Management, 79*(3), 446-457.
- Dyck, C., Schneider, I., Thompson, M., & Virden, R. (2003). Specialization among mountaineers and its relationship to environmental attitudes.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21*(2), 44-62.
- Gaspar, R. (2013). Understanding the reasons for behavioral failure: A process view of psychosocial barriers and constraints to pro-ecological behavior. *Sustainability, 5*(7), 2960-2975.
- Geller, E. S. (2002). The challenge of increasing proenvironment behavior.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96), 525-540.
- Gkargkavouzi, A., Halkos, G., & Matsiori, S. (2019). How do motives and knowledge relate to intention to perform environmental behavior? Assessing the mediating role of constraints. *Ecological Economics, 165*, 106394.
- Guckian, M. L., Danylchuk, A. J., Cooke, S. J., & Markowitz, E. M. (2018). Peer pressure on the riverbank: Assessing catch-and-release anglers' willingness to sanction others'(bad) behavior.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19*, 252-259.
- Jeanson, A. L., Cooke, S. J., Danylchuk, A. J., & Young, N. (2021). Drivers of pro-environmental behaviours among outdoor recreationists: The case of a recreational fishery in Western Canada.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89*, 112366.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ollmuss, A., & Agyeman, J. (2002). Mind the gap: why do people act environmentally and what are the barriers to pro-environmental behavior?.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8(3), 239–260.
- Lee, W., & Jeong, C. (2018). Effects of pro-environmental destination image and leisure sports mania on motivation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of visitors to Korea's national park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10, 25–35.
- Moghimehfar, F., & Halpenny, E. A. (2016). How do people negotiate through their constraints to engage in pro-environmental behavior? A study of front-country campers in Alberta, Canada. *Tourism Management*, 57, 362–372.
- Moghimehfar, F., & Halpenny, E. A., & Walker, G. J. (2018). Front-country campers' constraints, negotiation, and pro-environment behavioral intention: An extension to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Leisure Sciences*, 40(3), 174–193.
- Raynal, J. M., Weeks, R., Pressey, R. L., Adams, A. J., Barnett, A., Cooke, S. J., & Sheaves, M. (2020). Habitat-dependent outdoor recreation and conservation organizations can enable recreational fishers to contribute to conservation of coastal marine ecosystems. *Global Ecology and Conservation*, 24, e01342.
- Sardar, S., & Islam, M. M. (2024). Sustainable outdoor recreation behavior: An extended model based on leisure specialization. *Sustainability*, 17(1), 74.
- Scott, D., & Shafer, C. S. (2001).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 critical look at the constru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3), 319–343.
- Steg, L., & Vlek, C. (2009). Encouraging pro-environmental behaviour: An integrative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9(3), 309–317.
- Steg, L., Perlaviciute, G., & Van der Werff, E. (2015). Understanding the human dimensions of a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805.
- Sutton, S. G., & Tobin, R. C. (2011). Constraints on community engagement with Great Barrier Reef climate change reduction and mitigati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3), 894–905.
- Taberero, C., & Hernández, B. (2012). A motivational model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5(2), 648–658.
- Thapa, B. (2010). The mediation effect of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on environmental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41(3), 133–150.
- Thapa, B., Graefe, A. R., & Meyer, L. A. (2005). Moderator and mediator effects of scuba diving specialization on marine-based environmental knowledge-behavior contingency. *Journal of*

- Environmental Education*, 37(1), 53-67.
- Tietenberg, T. (2000).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5th ed.)*. Addison-Wesley.
- Van der Werff, E., Steg, L., & Keizer, K. (2013). It is a moral issu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self-identity, obligation-based intrinsic motivation and pro-environmental behaviour.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3(5), 1258-1265.
- Wynveen, C. J., Connally, W. D., & Kyle, G. T. (2013). Pro-environmental Behavior in Marine Protected Areas: The Cases of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nd the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Journal of Park & Recreation Administration*, 31(2).
- Yoon, J. I., Kyle, G., van Riper, C. J., & Sutton, S. G. (2012).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on the Great Barrier Reef, Australia. *In Proceedings of the 2010 Northeastern Recreation Research Symposium*, 231-238. USDA Forest Service.